

두달간 '화장실 앞 근무' 명령...인격 모욕 논란

나주배원에능협, 정직 처분 직원 자리 배치 물의

동선 보고 등 압박도...지노위는 "부당징계 철회" 판정

나주배원에능협이 조합장 출마가 예상되는 퇴직임원에게 내부정보를 훔치며 직원을 정직 처분하고 화장실 통로에 근무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나주배원에능협(이하 원협) 등에 따르면 원협은 지난 1월 공판업무 보던 A씨에게 '복무규정 위반사건의 행위책임' 등으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원협은 A씨가 지난해 조합장선거에서 현 조합장의 상대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퇴직임원 B씨에게 CCTV 녹화 자료 정보를 유출해 징계를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협이 관련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중징계를 내리고 조합원이 수시로 드나드는 화장실 통로에 자리를 배치해 2개월 동안 근무하게 한 것은 인격모욕적 인사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원협은 정직기간동안 A씨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경우 동선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토록 하는 등 각종 압박을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원협이 주장하는 (조합장이) 공판장에서 과일을 차에 싣고 있는 장면 등이 담긴 CCTV 녹화자료는 당시 임원이던 B씨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징계 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으며, 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징계기간 동안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원협관계자는 "의도적으로 (화장실 주변에)자리를 배치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중징계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그동안 병원치료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배원에능협직원들이 사용하는 안마기 의자 뒤쪽에 A씨가 근무했던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다. 책상 너머로 화장실 문이 보인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최근 나주배원에능협조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이 나온 만큼 조합장이 A씨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특히 "사측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회피함에 따라 집회시위를 내고 매일 오전 원협 입구에서 8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에 맞춰 1인 피켓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협은 A씨 외에도 여직원 2명에게도 퇴직임원 B씨에게 정보를 훔치라는 이유를 들어 복무규정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원협은 A씨 외에도 여직원 2명에게도 퇴직임원 B씨에게 정보를 훔치라는 이유를 들어 복무규정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나주시, AI 방역초소 사후관리 엉망

개인정보 자료 수천건 방치...범죄 현장 악용 우려도

나주시가 지난해 AI 방역초소에서 검역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수천건을 개봉된 채 방치하고 있어 말썽이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오리가 고향원성 확진 판정을 받아 사육중인 오리들을 매몰하고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이 동통제와 가금류 수송차량에 대한 검역 등을 실시했다.

시는 영산포유시장 입구와 나주대교 밑에 초소를 설치하고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가족 이동차량에 대해 성명, 주소,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방역한 자료는 수천건에 달한다.

하지만 시는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수천건을 방역기간이 끝난 후 수개월간 나주대교 아래 초소 내에 방치했다. 특히 해당 초소는 간이 침대 등이 설치돼 있는데다 잠금장치조차 없어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또 방역기간이 끝났는데도 수백만



AI방역기간이 지난 4월 종료된 가운데 나주대교 아래 방역 초소에 수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자료들이 방치돼 있다.

원에 달하는 방역약대조차 철거하지 않고 도로에 방치하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방역 후 사후 관리부재는 이번만이 아니다.

노안면 승선보입구에 옛 방역초소는 방역기간에 방역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석회석 수습 포대를 수천개 방치하고 있다.

나주시 축산과 관계자는 "나주대교 방역초소는 다시 설치할 경우 예산이 들어가 재활용 차원에서 철거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다"며 "검역자료들은 수거해서 폐기하고 컨테이너초소는 잠금장치로 폐쇄했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베트남 청년지도자들 "나주 선진농업 배우자"



베 농가·로컬푸드 직매장 방문

베트남 청년지도자들이 선진 농업을 배우기 위해 나주를 방문 중이다. <사진>

베트남 청년지도자들의 이번 나주 방문은 지난 2013년 9월 한국-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청년교류사업으로 이뤄졌다.

방한단은 지방청 부인민위원장인 베트남 내부에서 육성하는 차세대 농촌 지도자들이다.

청년지도자들은 나주형 로컬푸드사업의 추진배경과 의의에 관해 설명 듣고 로컬푸드직매장 및 농가 경영을 배운 뒤 오는 17일 베트남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지도자들은 또 나주의 대표 농산물 나주배의 재배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금천면의 배 마이스터 나병기 농가를 방문해 나주배의 재배현황, 유기농 재배 기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채진광 나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주의 농업현장을 둘러본 후 본국에 돌아가 베트남의 농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한단은 다양한 견학과 강의 등을 듣고 한국의 선진 농업 및 농가 경영을 배운 뒤 오는 17일 베트남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나주시장 공약이행, 매니페스토 평가 최고 등급

나주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전남 시군위 지역에서 최고등급(SA)을 획득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2일 전국 213개 지자체가 작성한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해 ▲공약이행 완료 ▲201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 30개 세부지표에 총 5단계(SA, A, B, C, D)로 등급을 매긴 결과를 발표했다.

나주시는 이번 민선 6기 공약실천계획서에 65개 공약사업을 담았으며 ▲나주시립예술단 출범 ▲종합스포츠파크 내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다목적체육관 아간 개방 및 실내수영장 개장시간을 앞당긴 공공체육시설 개방 확대 ▲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KTX 1일

10회 이상 나주역 정차 등 14건은 이미 완료했다.

특히 나주시는 공약내용과 실천사항을 주민이 수시로 확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치와 도표를 통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자체적인 공약평가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약을 맺고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통해 시민이 직접 평가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인구 시장은 "공약실천 단계에서 좋은 평가가 나온 만큼 앞으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책임 있게 실천하는 노력을 통해 시민과의 신뢰를 이어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나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시장애인체육회 창립이사회 열고 공식 출범



나주시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나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지난 7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창립이사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사진>

이날 창립이사회에서는 강인구 나주시장을 회장으로, 상임부회장(송중운)과 부회장(기정훈, 유남진, 이도전, 정성만), 사무국장(김은래) 임명동의, 이사·감사 등 임원(44명)을 선임하고 장애인체육회 규약(안)을 승인했다.

강인구 나주시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총회에서 "8400여 지역 장애인의 열망이었던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됐다"며 "장애인체육회가 성숙하고 발전하여 장애인체육의 가치가 전국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장애인체육 문화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강인구 나주시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총회에서 "8400여 지역 장애인의 열망이었던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됐다"며 "장애인체육회가 성숙하고 발전하여 장애인체육의 가치가 전국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장애인체육 문화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나주시-중앙익스프레스 '사랑의 이삿짐 지원' 협약

나주시는 "최근 이삿짐 전문 업체인 중앙 익스프레스(대표 김경중)와 저소득층 시민들의 이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사랑의 이삿짐센터 운영 사업'으로 명명된 이번 업무 협약은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장애 가구 등 이사 비용 마련에 부담을 갖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나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차량 및 장비 사용료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고 중앙 익스프레스에서는 자원봉사로 이삿짐의 운반 및 가재도구 정리를 맡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가구나 등록 장애인(1~3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가정 중 나주시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를 하는 경우다.

이삿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램**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광신프로그램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 062 511-1141

시행 1주에이저런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